

멋쟁이는 벌써 가을 준비

지역 백화점 무더위 속 가을 신상품 선보여
신세계, 17일까지 여성 커리어 간절기 상품전
롯데, 남성 니트·자켓, 여성 가디건 등 전시



10일 광주신세계 매장에 진열된 가을 옷을 소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멋쟁이는 계절을 앞서 간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광주 지역 백화점들이 가을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최근 컨템포러리 여성 브랜드 매장에서는 일찍부터 가을 신상품을 판매한다. 어떤 코디에도 무난하게 어울려 활용도가 높은 가을패션 대표 아이템 트렌치코트, 니트, 아상 자켓 등 시즌 트렌드 신상품을 이달말쯤 이맘 전 매장이 대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또 11일부터 17일까지 4층 행사장에서는 아직 햇볕은 따갑지 만 가을 신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여성 커리어 간절기 상품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쉬즈미스, 요하넥스, 데미안, 크레송, 피에르가르텔 등 여성 대표브랜드가 참여하며 트렌치 코트 등 간절기 상품을 최대 30~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가을상품이 각매장에 20%가량 배치했다. 남성 의류는 니트,자켓,지업,스웨터, 가을정장과 콤비로 이뤄졌고 여성 의류는 청남방,생지진,항공 점퍼,로브(가운),누비,슬렉스,레깅스,가디건,원피스,솔머플러, 가죽팬츠,가죽워커,바람막이등이 각매장에 전시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주 주중으로 본격적인 가을 상품이 매장에 주 상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을 예비부부, 혼수용품 저렴하게 장만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리블리 웨딩페이'
가전·가구·주방식기 등
최대 40% 할인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전매장을 찾은 예비 부부가 혼수 품목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가을·겨울 미리 준비하는 혼수 최대 성수기 맞아 혼수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2016년 하반기 '리블리 웨딩페이'를 진행한다.
가을 예비부부들을 위한 가전·가구·프리미엄 주방식기 등 혼수에 필요한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고가의 혼수 상품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에이스침대 퀸사이즈를 우대가로 판매하며, 국내 가구 브랜드 디자인벤처스에서는 백화점 최초 전품목 40% 할인과 더불어 일정 금액 구매 시 금액할인까지 해 준다. 또 다우닝·이탈리안홈에서도 전통 소파를 40%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증정한다.
가전을 대표하는 삼성·LG는 롯데카드 로 결제시 7.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프리미엄 가구 또한 금액대별 구

를 위한 수입주방용품 컬렉션을 진행해 르크루제 인기 품목인 무쇠냄비와 스톤웍을 선보이며, 실리트와 행켈 브랜드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8층 각 매장에서 '덴비·포트메리온 특집'과 '박흥근 창립초대전' '다이스 할인전'을 열어 최대 50% 할인과 브랜드 별 할인혜택 및 특별선물을 준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를 위한 수입주방용품 컬렉션을 진행해 르크루제 인기 품목인 무쇠냄비와 스톤웍을 선보이며, 실리트와 행켈 브랜드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8층 각 매장에서 '덴비·포트메리온 특집'과 '박흥근 창립초대전' '다이스 할인전'을 열어 최대 50% 할인과 브랜드 별 할인혜택 및 특별선물을 준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오피스 빌딩 임대수익률 최저

공실률 낮아졌지만 임대료 적어
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거래동향

광주의 오피스 전용 빌딩의 사무실 공실률이 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 낮고 임대가격지수 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및 거래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7.5%였다. 전국 평균 13.5%보다 높았지만 다른 광역시보다는 낮았다.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서울(10.1%)이 가장 낮았고 광주에 이어 부산(17.9%), 대구(18.1%), 인천(19.3%), 울산(23.1%) 대전(24.9%) 순이다.

광주는 다른 대도시보다 임대료도 적었다.
1㎡당 임대료는 광주가 6100원으로 대전 5000원에 이어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서울은 2만500원, 인천 9천300원, 울산 8천200원 부산 7천900원, 대구 7천400원 순이다.
임대가격지수 하락률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 변동률은 광주가 -0.9%였으며 전국 평균 -0.1%를 훨씬 웃돌았다.
오피스빌딩 실투자금 대비 순수입 비율인 투자수익률도 광주가 가장 낮았다. 광주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은 0.84%로 전국 평균 1.51%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부산이 1.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4%, 대구 1.54%, 인천 1.41%, 울산 1.22%, 대전

0.91% 순이었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수익률도 광주가 2.61%로 전국 평균 5.7%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별·광역시중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7.41%로 광주 서구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임대수익률 7.53%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타 지역 임대수익률보다 높았다. 광주 다음으로 대전 7.19%, 인천 6.82%, 대구 6.25%, 부산 5.88% 울산 5.22% 순이다.
광주의 경우 오피스 전용 빌딩보다는 오피스텔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오피스 전용 빌딩 공실률이 낮아졌으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층이 얇아 임대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국세청, 사후검증 30% 줄여 납세자 세부담 최소화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유지키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부담과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차질없는 세입예산 조달,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서민 생활 안정 뒷받침, 공평과세 확립, 불복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

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조사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000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추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법과 규정 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9000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비는 56.8%로 7.8%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2013·20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도 세수 실적 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예정된 법인 중간예납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징수체계를 효율화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액의 법인세·증여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돼지고기 삼겹살 대형마트가 가장 싸다

백화점보다 56% 저렴

삼겹살 등 휴가철 나들이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달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 주요 나들이

이 식품 10개 중 6개가 대형마트에서 가장 저렴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삼겹살(100g·2115원), 생수(500ml·331원), 콜라(1.8ℓ·2358원), 햄(100g·2338원), 맥주(355ml·1287원), 소주(360ml·1126원)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백화점, SSM보다 저렴했다.
가장 많은 가격 차이를 보인 제품은 삼

겹살로, 백화점보다 56.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겹(500g·2827원)과 맛살(500g·2827원)은 전통시장, 김밥 김(10매·1627원)은 백화점이, 빙과류(단품·472원)로 SSM이 가장 가격이 낮았다.
한편 지난달 양파와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6월보다 각각 -5.5%, -1.9% 각각 하락했고 쇠고기(4.8%), 배추(2.0%), 무(1.7%) 가격은 지난달보다 상승했다.
/연합뉴스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

CHANNEL 매일 저녁 7시 20분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